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9월 7일 목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강원도민일보	02면	강원특자도 범국민추진협 추진단, 특별법 개정 지원 논의	1
강원도민일보	22면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자원봉사자 "성공 위해 모였다"	1
江原日報	04면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 개최 이끌겠다"	2
강원도민일보	12면	'새마을운동 한마음 효잔치' 지역 어르신과 소통의 시간	3
강원도민일보	23면	"강원여성과 특별자치도 완성" 여성계 화합·의지 다졌다	3
江原日報	01면	여성이 살기 좋은 강원특별자치도 만들어요	4
江原日報	02면	“강원 여성 금지 높이고 평등 가치 실현하자”	5
江原日報	03면	정치신인 속속 출마 선언 ... 젊은피 패기 현역에 도전장	6
ms투데이		(기획) ‘메타버스’에 540억 베풀?도민 혈세 살살 녹는다[1/...	7
신아일보	온라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심오섭 도의원 발의 '영상산업 육성 조...	9
시사일보	온라인	심오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영상산...	10
신한뉴스	온라인	김정수 의원,‘강원특별자치도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구...	11
정도일보	온라인	김정수 의원,‘강원특별자치도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구...	12
정도일보	온라인	원미희 의원,‘강원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	13
문화매일	온라인	원미희 의원,‘강원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	14
亞細亞經濟	온라인	원제용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	15
강원도민일보	02면	강원 학생교육 조례 '노동 인권·평화' 문구 사라진다	16
江原日報	03면	정권 따라 달라지는 조례 이름?	17
江原日報	온라인	‘평화.통일교육’ 대신 통일교육, ‘노동인권교육’대신 ‘근로...	18
시사일보	온라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현장 인성교육 강화 된다	19
연합뉴스		강원도의회, 작은도서관 지원.학생 근로권리 교육 조례 등 ...	20
江原日報	03면	자치도의회 상임위 현지 시찰	21
KBS 춘천		[여기는 강릉] 강원도 제2청사 첫 업무보고...오염수 대응 ...	22
시사일보	온라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 동해안 시대 이끌 제...	24
시사일보	온라인	사회문화위원회 신규 소관 업무보고 및 현지시찰 추진	25
신아일보	온라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2023 강원세계산림...	26
강원도민일보	22면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고성 산림엑스포 현장방문	27

강원도민일보	온라인	도의회 농림수산위, 2청사 해양수산정책관 현지 업무보고	27
강원도민일보	22면	도의회 안전건설위 조례안 심의	28
강원도민일보	23면	"지방의회 자치조직권 확대 필요... 특자도 상생협력 기대"	28
江原日報	온라인	[동정] 엄윤순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29
江原日報	21면	[동정] 엄윤순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인제)	29
강원도민일보	14면	[동정] 최상기(왼쪽) 인제군수·엄윤순(인제) 도의회 농림수...	29
江原日報	11면	김진태 지사 “강원오페라하우스 건립 긍정 검토”	30
江原日報	02면	강원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오늘 출범	30
江原日報	01면	혈세만 낭비한 '공공앱·전기차 지원 사업'	31
江原日報	04면	강원 교사 1만6,871명인데... 정신건강 상담사 단 1명뿐	31
강원도민일보	01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내달 착공	32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추석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을	33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천원의 아침밥' 지속가능성이 관건	34
江原日報	19면	[사설] 소비자물가 다시 3%대, ‘서민 경제’ 짓누르고 있다	35
江原日報	19면	[사설] 발등의 불 된 강원특별자치도 재정 건전성 확보	36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07일 (목)

종합 02면

강원특자도 범국민추진협 추진단, 특별법 개정 지원 논의

양양서 회장단 워크숍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 추진단이 6일 양양군 설해원에서 회장단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 김진하 양양군수, 오세만 양양군의회 의장, 추진단 회장 12명이 참석했다. 권혁열 도의회의장은 이날 추진단 회장단에게 감사패

를 전달했다. 도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추진단 민간위원의 단합과 향후 추진단 활동 계획, 특별법 개정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했다. 도는 도의회, 강원연구원, 18개 시·군과 함께 이달 중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작성을 마치고 10월부터 토론회·공청회 등 도민 의견 수렴·여론 결집에 돌입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는 400명의 위원 모두 참석하는 결집 대회를 다음달 춘천에서 개최한다. 김덕형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07일 (목)

인물 22면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자원봉사자 “성공 위해 모였다”

자원봉사단 발대식 300명 참석
봉사단장에 고성 김정인 센터장
안내·통역·안전관리 역할 수행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자원봉사자들이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다짐했다.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는 6일 국회 고성연수원에서 김진태 조직위원장(도지사)과 권혁열 도의장, 이병선 속초시장, 최상기 인제군수, 함명준 고성군수, 김진하 양양군수와 자원봉사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가졌다.

개막을 보름 앞두고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김정인 고성군자원봉사센터장이 엑스포 자원봉사단장으로 위촉됐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자원봉사단 발대식이 6일 국회 고성연수원에서 열렸다.

다. 또 박세진·박해정 봉사자가 대표로 ‘우리의 다짐’ 낭독을 통해 성공 개최를 위한 의지를 모았다.

오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31일간 열리는 엑스포에는 자원봉사자 515명이 참여한다. 행사기간 일일 154명의 봉사자가 행사장 곳곳에 배치돼 프로그램 안내와 외국어 통역, 안전관리 등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이날 봉사자들은 엑스포의 기본개요를 공유하고 근무요령, 친절 교육 등으로 구성된 역량강화 교육도 받았다. 도는 엑스포 개막일 전까지 현장교육을 3차례 추가로 진행, 원활한 활동을 돕는다. 도자원봉사센터와 개최 4개 시·군센터가 봉사자 운영을 맡아 원활한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진태 조직위원장은 “엑스포 성공

을 위해 모인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 자원봉사자 분들의 미소로 배려 넘치도록 노력하겠다”며 “미래가치로서의 산림을 알리는 의미있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

권혁열 의장은 “엑스포 성공개최의 주역은 바로 자원봉사자이므로 자긍심을 갖고 봉사에 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조직위는 이날 강원세계잼버리수련장에서 2023년도 제5회 이사회를 개최, 행사준비상황과 안전 및 시설 대책 등을 점검했다. 행사장 안에서 직원들이 진행한 소나무 2023그루 심기의 마지막 나무를 김 위원장과 임원들이 심기도 했다. ‘세계, 인류의 미래, 산림에서 찾는다’를 주제로 한 산림엑스포는 고성토성면 세계잼버리수련장을 비롯한 고성, 속초, 인제, 양양 일원에서 열린다. 김여진·김덕형

江原日報

2023년 09월 07일 (목)

사회 04면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 개최 이끌겠다”

자원봉사단 공식 출범

15일 앞두고 고성에서 발대식 300여명 참석 멋진 활약 다짐
김 지사 “대한민국 명예 걸러 모두가 진심 갖고 손님맞이를”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은 우리의 미소와 손길로 빛난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국제대회인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이끌 자원봉사단이 6일 공식 출범했다.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는 이날 국회 고성연수원 대강의실에서 김진태 도지사, 권혁열 도의장, 김용복 도의회 농업수산위원장, 함명준 고성군수, 이병선 속초시장, 최상기 인제군수, 김명길 속초시의장, 김동일 엑스포조직위 상임부위원장, 박응삼 강원특별자치도 임업특보, 이덕하 강원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김정인 고성군자원봉사센터장, 하종수 속초시자원봉사센터장, 이영자 인제군자원봉사센터장, 한정임 양양군자원봉사센터장, 고성군, 속초시, 인제군, 양양군 자원봉사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고성군자원봉사센터 아리아리에 술단의 사전 공연을 시작으로 문을

연 이날 발대식은 엑스포 홍보영상물 시청, 자원봉사단장 위촉, 자원봉사자 대표 선서, 현수막과 수건을 이용한 엑스포 성공기원 다짐 및 세리머니, 자원봉사자의 기본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김진태 도지사는 “강원세계산림엑스포는 대한민국의 이목이 집중된 대회인 만큼 어느 때보다 자원봉사자의 어깨에 대한민국의 명예가 걸려 있다”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자원봉사자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진심을 갖고 손님을 맞이한다면 강원도의 마음이 세계로

전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혁열 도의장은 “이번 대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출발점이 될 대회”라며 “이곳 고성은 1991년 고성세계잼버리 대회를 성공적인 치른 경험을 간직한 곳이기 때문에 자원봉사단의 멋진 활약을 기대한다”고 축하했다.

함명준 군수는 “1991년 세계 잼버리 대회 이후 고성군이 다시 주역이 된 순간”이라며 “대회 기간 설악권 자원봉사자 모두가 밝고 즐겁고 행복한 봉사자 엑스포 얼굴이자 주인으로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했다.

이덕하 도자원봉사센터장은 엑스포의 긴 여정을 함께할 자원봉사자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봉사단원들이 성공 개최의 주역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는 ‘세계 인류의 미래 산림에서 찾는다’를 주제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 세계잼버리수련장을 비롯해 속초시, 인제군, 양양군 일원에서 개최된다.

김천열기자 history@kwnews.co.kr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자원봉사단 발대식이 6일 고성 국회 고성연수원에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권혁열 도의장, 함명준 고성군수, 이병선 속초시장, 최상기 인제군수, 김명길 속초시의장, 이덕하 강원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을 비롯한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고성=권태명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07일 (목)

지역 12면

‘새마을운동 한마음 효잔치’ 지역 어르신과 소통의 시간

‘2023년 새마을운동 한마음 효잔치’가 6일 강릉시 강남축구공원 실내체육관에서 김홍규 시장,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기영 시의장, 심재빈 강릉시노인회장, 전제철 새마을운동 강릉시지회장, 이시우 새마을지도자 강릉시협의회장, 김지순 강릉시 새마을부녀회장을 비롯한 지역 어르신,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릉시가 주최하고 새마을운동 강릉시지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완산면 새마을부녀회의 난타공연을 시작으로 90세 이상 어르신 생신상 차림 행사가 진행됐다.

또 어르신들을 위해 지역 가수 초청, 축하공연 등이 이어졌다.

전제철 지회장은 “효잔치를 통해 외로운 지역 어르신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자 했다”며 “효 실천 문화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홍성배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07일 (목)

인물 23면

“강원여성계와 특별자치도 완성” 여성계 화합·의지 다졌다

속초서 27회 강원여성평등대회
시·군별 화합 경연대회 등 성료
성평등 활동 확대·교류 다짐

강원여성계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완성
과 성평등한 강원도 만들기를 위해 힘
모으기로 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강원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제27회 강원여성평등대회’가 6일 속
초청소녀수련관 실내체육관에서 김진
태 도지사, 권혁열 도의장, 이병선 속초
시장을 비롯한 시장·군수, 경민현 강원



강원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강원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제27회 강원여성평등대회가 6일 속초에서 열렸다.

도민일보 부사장, 도내 기관·단체장을
비롯한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
렸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날 대회에서 안정희 도여성단
체협의회장을 비롯한 시·군여성단체
협의회장과 회원들은 강원특별자치도

의 성공적인 안착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 강원 여성이 적극 동참하고 노력하
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완성은 우리가
함께 한다’는 슬로건 아래 오전·오후
행사로 나눠 열린 대회에서는 속초시
시립풍물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양성평
등현장 낭독, 주제퍼포먼스, 18개 시·
군 별 1분 발언과 화합경연대회, 초청
공연 등이 이어졌다.

2023여성평등주간(9월 1~7일)을
맞아 열린 기념식에서는 김인련 강릉
단오제위원회 부위원장이 자랑스러운
여성상을, 바르게살기운동 도협의회
와 원주시여성단체협의회가 강원도평

등문화상을 받았다.

도여성단체협의회 안정희 회장은
“여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성
인권 복지,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의 분
야에서 여성계의 역할을 심도 있게 고
민해야 할 때”라며 “강원여성의 활동 범
위를 넓히고 교류를 다지면서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
다. 김진태 도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이
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양성평등의 중
심이 되겠다”며 “여성고남성이 가족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 진흥사업
을 적극 지원,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박주석 jooseok@kado.net

江原日報

2023년 09월 07일 (목)

종합 01면



여성이 살기 좋은 강원특별자치도 만들어요 '제27회 강원여성평등대회'가 6일 속초 청소년수련관에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권혁열 도의장, 이병선 속초시장,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도내 여성기관·단체장과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의 완성은 우리가 함께한다'를 주제로 열렸다. ▶ 관련기사 2면

속초=권태명기자



◇제27회 강원양성평등대회 기념 ‘2023 속초 미래 100년으로’ 사진전이 6일 속초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과 권혁열 도의장, 신경호 교육감, 이병선 속초시장,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들이 사진을 관람하고 있다.

속초=권태명기자 kwon80@kwnews.co.kr

“강원 여성 긍지 높이고 평등 가치 실현하자”

강원양성평등대회 속초 개최 ‘속초미래 100년 사진전’ 인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을 맞이해 80만 강원 여성들이 결집했다.

강원자치도가 주최하고 강원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한 ‘2023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및 제27회 강원양성평등대회’가 6일 오전 속초 청소년수련관 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완성은 우리가 함께한다’를 슬로건으로 80만 강원 여성의 긍지를 고취하고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1부 기념식은 ‘21세기 남녀평등헌장’ 낭독에 이어 김진태 도지사의 유

공자 시상 등으로 진행됐다. 김인련 강릉단오제위원회 부위원장이 올해 자랑스러운 강원여성상을 수상했고, ‘바르게살기운동 도협의회’와 ‘원주시여성단체협의회’는 강원도 평등문화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여성발전 유공자와 공무원, 여성단체 활성화 유공자에게는 각각 표창과 감사패가 주어졌다. 이외에도 이병선 속초시장과 안금주 속초시여성협의회장, 안미선 속초시 주무관이 도여성협의회장 감사패를 받았다. 지역 고교생을 위한 도여성협의회장 장학금도 함께 전달됐다.

이날 행사가 열린 속초 청소년수련관 실내체육관 로비에서는 창간 78주년을 맞은 강원일보와 강원사

진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한 ‘2023 속초 미래 100년으로’전(展)이 진행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안정희 도여성단체협의회장은 “진정한 성평등은 무조건적인 동등이 아니라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해 가는 것”이라며 “이제 우리를 위한 정책을, 미래를, 직접 바꿀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여성과 남성이 가족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앞으로도 여성의 참된 자유 회복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회에는 권혁열 도의장, 신경호 도교육감과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을 비롯해 함명준 고성군수, 이건설 도노인회장, 양희구 도체육회장, 김명길 속초시장, 정정순 삼척시장, 이금선 강원경제단체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수빈기자

江原日報

2023년 09월 07일 (목)

종합 03면

정치신인 속속 출마 선언 ... 젊은피 패기 현역에 도전장

/ 기획 - 미리 보는 강원 2024 총선 /

◇강원권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출마 예상자 (현역·정당·가나다 순)

춘천갑	허영(민), 노용호(국·비례), 강대규(국), 김혜란(국), 허인구(국), 박영춘(무)
춘천·철원·화천·양구·영월	한기호(국), 이민찬(국), 허인구(국), 유정배(민), 전성(민), 최문순(민)
원주갑	박정해(국), 원창목(민), 여준성(민), 최석(민)
원주을	송기현(민), 김기홍(국), 권이중(국), 박동수(국), 안재운(국), 윤용호(국), 장승호(국), 전병선(국), 최재민(국)
강릉	권상동(국), 김우영(민)
동해·대박·삼척·정선	이철규(국), 김양호(민), 한호연(민)
속초·인제·고성·양양	이양수(국), 김도균(민), 박상진(민)
홍천·횡성·영월·평창	유상범(국), 허필홍(민)

(4·完)새인을 등장, 판 흔드나

국힘 춘천갑·원주를 대거 등관
기업·언론·법조인·軍 출신 다양
민주 현역 대항마 찾기 분주

내년 4월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200여일 앞으로 다가오자 정치신인들이 속속 정치판에 뛰어든다. 현역의원들에 도전하는 정치신인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는 가운데 이달 말 추석 명절을 기점으로 당내 공천권을 따내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천타천 거론되던 이들이 필드 위에 올라서기 시작하면서 지역 내 선거 분위기도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국힘 춘천갑·원주를 공략=강원특별자치도 내 전체 8곳 선거구 중 6곳에서 국민의힘 현역의원들이 다선을 노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의원이 있는 춘천갑·원주을 2곳을 중심으로 여권 신인 주자들이 도전장을 내고 있다.

특히 강원정치 1번지로 여겨지는 '춘천갑(춘천·철원·화천·양구갑)' 지역구를 탈환하기 위한 국민의힘 신인들의 패기가 상당하다. '춘천갑'에는 우선 춘천갑당협위원장인 국민의힘 노용호(비례) 국회의원이 일찌감치 도전장을 냈다. 여기에 3040세대인 강대규·김혜란 변호사가 뛰고 있으며, 최근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박영춘 전 SK그룹 수펙스추진협의회 부사장은 출사표를 던졌다. 박 전 부사장은 조만간 국민의힘으로 입당할 예정이다. '춘천·철원·화천·양구' 지역구에는 철원 출신 이민찬 중앙당 상근부대변인이 이미 1년 전인 지난해 6월부터 바둑민심을 흠뻑하면서 얼굴과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지난달 출마를 결심한 허인구 전 G1 사장도 정치 신인이다. 아직 출마선거구를 결정하지 못한 그가 이달 말 '춘천갑' '춘천·철원·화천·양구' 중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경선 구도에도 변화가 생긴다. '원주을'에 도전하는 여권 주자들도 8명이나 된다. 지난 해부터 1년 넘게 공석인 '원주을' 당협위원장 공모에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최재민 도의원, 권이중·박동수 변호사, 안재운 미래교육아카데미 대표, 윤용호 전 중앙당 부대변인, 장승호 한국도시발전연구소 대표, 전병선 전 원주시의원이 신청했다. 중앙당은 선거까지 아직 시간이 있다고 판단, 더 많은 인재 발굴을 위해 결정을 미뤘다.

■민주 與현역 대항마 찾기=야당으로 선거를 치르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현역의원들의 대항마를 찾기 위해 바쁘다. 공천심사에 가까워지면 8곳 중 2곳(춘천갑·원주을)을 제외하고 나머지 6곳에도 주자들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지역위원장들이 중심이 돼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김우영 강원특별자치도당위원장은 강릉에 터를 잡았고, 동해·대박·삼척·정선에는 김양호 전 삼척시장과 한호연 지역위원장이 지키고 있다. '속초·인제·고성·양양'에는 박상진 위원장 뿐만 아니라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뛰어들면서 경선이 예상된다.

'홍천·횡성·영월·평창'은 최근 허필홍 전 홍천군수가 지역위원장을 맡아 4개 지역을 누비고 있다. '원주갑'에는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낙선했던 원창목 지역위원장이 다시 예열 중이고, 여기에 여준성 전 청와대 비서관, 최석 전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이 목소리를 키워나가고 있다. '춘천·철원·화천·양구'에는 전성 위원장과 유정배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경쟁 중이다. 서울=이하늘기자

(기획) '메타버스'에 540억 베풀?도민 혈세 살 살 녹는다

최민준 기자

[때 늦은 메타버스] ① 수백억원 사업, 성과는 의문
강원자치도, '메타버스 거점 도시'에 예산 540억원
세부 사업 지연되거나 인력 못 구해 중단되기도
김기홍 도 부의장 "불 지났는데 호응 얻을지 의문"

메타버스(Metaverse)는 디지털 가상 공간을 뜻하는 용어로 2021년 IT업계에 본격 등장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메타버스를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한다며 개발 예산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유행은 빠르게 식었고, 2년여가 지난 현재 민간 분야에서 메타버스는 AI에 밀려 이미 관심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한 템포 늦은 예산 집행은 올해부터 뒤늦게 본격화한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메타버스 산업을 육성한다며 쏟아부은 돈과 앞으로 쓸 돈을 합하면 확인된 것만 모두 540억원에 달한다. 이제 와서 강원자치도가 메타버스 분야에서 신산업을 일으킬 수 있을 거라 기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메타버스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은 반짝 유행에 따라 혈세를 투입하고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되는 상명하달식 산업 육성의 실태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편집자 주>

4일 오전 춘천 서면 강원VR·AR제작거점센터(강원VR센터). 센터 앞 주차장엔 2개월 전 마감한 '메타버스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공고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3차례 모집기간 연장 끝에 20명 정원 중 끝내 15명밖에 채우지 못했던 교육 프로그램이다. 센터 외벽에는 가로 10m쯤 되는 대형 스크린을 통해 센터가 1100만원을 들여 제작한 센터 홍보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건물 안쪽에는 메타버스 체험 시설이 있었으나 4곳을 돌아보는 동안 사용자는 한 명도 볼 수 없었다.

강원자치도는 도를 '메타버스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고 총 54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강원VR센터는 그 대표적인 결과물 중 하나로, 2021년 문을 열어 지금까지 구축과 운영에 혈세 90억원을 들였다. VR, AR 기기를 비롯한 장비 72대가 배치돼 있지만 지난 수개월간 기업 몇 곳이 장기 이용하고 있을 뿐, 대부분이 사용자 없이 방치되는 중이다. VR 체험, 학습을 유도한다는 체험관 6곳은 평일 6시간씩 운영하는데 '시설 대여 현황'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센터 관리자가 아닌 타인이 시설을 이용한 날은 3일에 불과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메타버스 거점도시 조성'에 사업비 540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강원자치도가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한 것과 달리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도내 기업체나 일반인의 관심은 저조하다. 올해 '메타버스 거점도시' 사업에 투입된 도 예산은 모두 128억 5800만원이다. 지난해와 전임 도지사 시절 사용된 액수까지 합하면 280억원에 달한다. 앞으로 2026년까지 더 사용할 예산은 260억원이 남아 있다.

MS투데이 취재 결과 강원자치도의 '메타버스 거점도시 조성' 사업들이 전부 비슷한 상황이었다. 메타버스 거점도시 사업은 △VR·AR 제작거점센터 구축·운영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초광역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운영 △메타버스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 △메타버스 융합 대학원 설립 등 5개로 구성된다. VR센터 외에도 다른 사업들 대부분이 시민 외면 속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메타버스 관련 사업에 책정된 돈은 일회성으로 무의미하게 지출되는 경우가 많다. 강원VR센터는 지난해 11월 센터 홍보영상 제작을 위해 춘천 민간 업체와 약 1100만원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이후 결과물이 올해 2월 유튜브 등에 업로드됐지만 3분 분량 영상 두 편의 조회수는 각각 50회 수준에 불과하다. 센터 관계자는 이 영상에 대해 "유튜브만 아니라 진흥원 외부 전광판, 모니터 등 각종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4일 오전 춘천 서면 강원 VR-AR제작거점센터가 입주한 건물에 설치된 옥외 전광판에서 센터 홍보 영상이 나오고 있다. (사진=최민준 기자)

용어 설명

메타버스(Metaverse): '가상', '초월' 등을 뜻하는 영어 단어 '메타(Meta)'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 웹상에서 아바타를 이용해 사회, 경제, 문화적 활동을 하는 가상현실 플랫폼.

VR(Virtual Reality): 가상 현실. 현실과 비슷하게 만들어 낸 가상적인 3차원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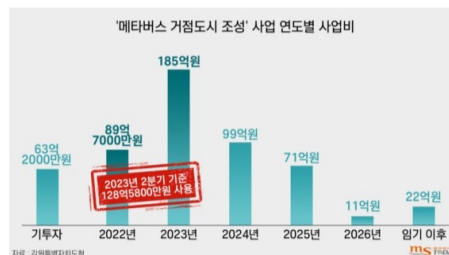
AR(Augmented Reality): 증강 현실. 현실에 3차원의 가상물체를 띄워서 보여주는 기술.

메타버스 전문 대학원을 개설해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은 시작조차 못했다. 공모를 진행했지만, 도내 대학 한 곳도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탓이다. 교수, 신입생 등 메타버스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도가 요구하는 과제를 추진할 여건이 미흡하다는 게 이유였다. 현재 대학원 설립 계획은 모두 중단됐다.

이에 도는 메타버스 아카데미 사업 추진으로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대책을 내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국 대상 300명에게 무료로 메타버스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강원권에선 강원디자인진흥원이 운영을 맡아 정원 20명을 모집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수요가 적어 2~3회 추가 모집을 진행했고, 15명의 교육생을 모집하는 데 그쳤다. 강원디자인진흥원 관계자는 "춘천에서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 지역이 한정적이었고 오전 오후 내내 수업이 진행돼 학생이나 직장인의 참여가 어려워 대상이 적었다"고 말했다.

강원자치도가 지원하고 강원테크노파크가 운영하는 '메타버스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눈먼 돈 퍼주기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기업의 메타버스 콘텐츠 기획과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억2000만원의 지원금을 걸고 11월 공고를 냈다. 이후 지원 기업을 선정해 사업 종료 후 결과 평가까지 한달여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다. 해당 기업들이 어떤 사업을 벌여 지원을 받았는지도 공개하지 않는다. 강원테크노파크는 본지가 이 사업 지원내역을 묻자 "기업 보안 등의 이유로 공개가 힘들다"고 밝혔다. 절차가 부실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기한이 연말까지인 사업이 하반기가 돼서야 시작돼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했다.

메타버스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올해도 4번의 기업 모집 공고를 냈지만, 아직 지원 기업을 찾지 못했다. 선정 기업엔 올해 말까지 2억4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강원테크노파크는 기업들이 지역 특화산업과 메타버스를 연계하는 사업 내용을 어려워한다고 판단, 기준을 완화해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올해 들어 2분기까지 메타버스 관련 사업에 128억5800만원을 투입했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도가 거액을 들여 개발한 가상, 현실 플랫폼들도 잇따라 출시를 앞두고 있지만, 시민 관심은 저조하다. 메타버스 플랫폼, 가상 'K-강원'에는 2년간 65억원이 투입되며 내년에 열릴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때 활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달 예정됐던 서비스 개시는 다음 달로 연기됐다. '멀티플렉스 체험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릉시와 함께 사업비 240억원을 투입한다. 메타버스 기술 체험과 유통·소비가 가능한 복합공간을 조성해 지역 상징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올 상반기 실시 설계를 시작해 내년 1월 개관을 목표로 했으나 올림픽 개최 이후인 7월로 연기됐다.

김기홍 강원자치도의회 부의장은 본지와와의 통화에서 "메타버스라는 시스템 자체가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모습이며 한창 유행하던 시점에서 1~2년이 지나 사람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언젠가 필요할 수 있으니 대비하는 측면에서 지금 사업이 헛되다 할 수는 없지만, 인력 양성 등을 강제로 추진한다고 메타버스가 활성화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2편에서 계속]

[최민준 기자 chmj0317@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2023년 09월 06일 (수)

지역

신아일보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심오섭 도의원 발의 '영상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조덕경 기자

지역 영상미디어센터 지원 근거 마련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오섭 의원(강릉2)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영상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오섭 의원(강릉2)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내 영상미디어센터 지원을 위한 근거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도내 권역별 영상산업 발전의 균형과 도민의 서비스 수혜 접근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영상미디어 센터를 설치하는 시·군에 대한 보조금 지원 ▲영상미디어센터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시·군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이다.

이에 따라 도내 권역별 영상산업 육성 및 발전의 균형과 도민의 영상·미디어 활동 등 문화생활 향상에서의 형평성이 크게 확대되고, 다가올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홍보 및 영상·미디어 분야 운영에도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오섭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도내 영상미디어센터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 조항이 마련된다면, 도내 권역별 영상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에 대한 도의 조정자 역할이 커지고, 이에 따라 영상·미디어 문화 서비스에 대한 도민의 수혜 형평성이 크게 강화될 것이다”라고 강변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32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신아일보] 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

2023년 09월 06일 (수)

전국

시사일보

심오섭 강원특별자치도의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지역 영상미디어센터 지원 근거 마련

전영선 기자



▲ 심오섭 의원(강릉2)

[시사일보=전영선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오섭 의원(강릉2)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내 영상미디어센터 지원을 위한 근거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도내 권역별 영상산업 발전의 균형과 도민의 서비스 수혜 접근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영상미디어 센터를 설치하는 시·군에 대한 보조금 지원 ▲영상미디어센터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시·군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이다.

이에 따라 도내 권역별 영상산업 육성 및 발전의 균형과 도민의 영상·미디어 활동 등 문화생활 향상에서의 형평성이 크게 확대되고, 다가올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홍보 및 영상·미디어 분야 운영에도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오섭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도내 영상미디어센터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 조항이 마련된다면, 도내 권역별 영상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에 대한 도의 조정자 역할이 커지고, 이에 따라 영상·미디어 문화 서비스에 대한 도민의 수혜 형평성이 크게 강화될 것이다”라고 강변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32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문화매일, 엔사이드 등 29개 언론사 보도 ;

2023년 09월 06일 (수)

지역

신한뉴스

김정수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

고태우 기자



▲ 김정수 의원(철원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김정수 의원(철원1)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6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는 도내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협조체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민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수상레저 관련 안전사고는 총 166건으로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약 35% 증가한 66건이 접수됐다.

기구별로는 서프보드가 59%로 가장 많았고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등이 뒤를 이었으며 이들 수상레저사고는 개인활동자 증가에 따른 사고 예방과 충돌·표류 사고 발생에 대한 안전의식 함양의 필요성을 불러일으켰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제도의 개선 및 보완, 안전 관련 주요 정책 및 업무 협조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한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정수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는 서평의 메카 양양 등 동해안의 해수면을 비롯하여 래프팅 명소인 철원 한탄강, 인제 내린천, 영월 동강 등 내수면까지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천혜의 환경을 갖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안전관리 협조체제가 강화되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도일보

2023년 09월 06일 (수)

강원

김정수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

최명구 ccmg0923@naver.com



(정도일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김정수 의원(철원1)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6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는 도내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협조체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민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수상레저 관련 안전사고는 총 166건으로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약 35% 증가한 66건이 접수됐다.

기구별로는 서프보드가 59%로 가장 많았고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등이 뒤를 이었으며 이들 수상레저사고는 개인활동자 증가에 따른 사고 예방과 충돌·표류 사고 발생에 대한 안전의식 함양의 필요성을 불러일으켰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제도의 개선 및 보완, 안전 관련 주요 정책 및 업무 협조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한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정수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는 서핑의 메카 양양 등 동해안의 해수면을 비롯하여 래프팅 명소인 철원 한탄강, 인제 내린천, 영월 동강 등 내수면까지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천혜의 환경을 갖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안전관리 협조체제가 강화되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룸, 누리일보 등 27개 언론사 보도 ;

정도일보

2023년 09월 06일 (수)

강원

원미희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 육성
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최명구 ccmg0923@naver.com



(정도일보)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원미희 의원(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국제회의 유치와 추진하고 원활한 개최를 지원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현재 미설치된 국제회의지원협의회의 비상설화 근거를 규정, 탄력적인 운영으로 효율성 증대를 통한 강원특별자치도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국제회의산업은 대규모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국가 이미지를 높일 뿐만 아니라 호텔, 쇼핑 등 연관 산업에 끼치는 파급 효과가 큰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이다.

코로나19 이후 원격 영상회의 확산 등에 따라 국제회의산업은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작년말 정부에서는 국제회의의 소규모화 경향과 해외 기준을 고려하여 참가자 수, 회의진행 일수 등의 '국제회의' 기준을 완화하여 국제회의의 유치 경쟁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조문 신설, 국제회의지원협의회의 비상설화 근거 규정 마련,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원미희 의원은 “세계태권도연맹(WT) 본부 춘천 유치, 국제회의 기준 완화 등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국제회의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이 활발해져 고용창출 및 국가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문화매일

2023년 09월 06일 (수)

정치

원미희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 육성
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이등원 기자



▲ 원미희 의원(비례)

[문화매일신문=이등원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원미희 의원(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국제회의 유치를 촉진하고 원활한 개최를 지원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현재 미설치된 국제회의지원협의회의 비상설화 근거를 규정, 탄력적인 운영으로 효율성 증대를 통한 강원특별자치도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국제회의산업은 대규모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국가 이미지를 높일 뿐만 아니라 호텔, 쇼핑 등 연관 산업에 끼치는 파급 효과가 큰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이다.

코로나19 이후 원격 영상회의 확산 등에 따라 국제회의산업은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작년말 정부에서는 국제회의의 소규모화 경향과 해외 기준을 고려하여 참가자 수, 회의진행 일수 등의 '국제회의' 기준을 완화하여 국제회의의 유치 경쟁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조문 신설, 국제회의지원협의회의 비상설화 근거 규정 마련,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원미희 의원은 “세계태권도연맹(WT) 본부 추천 유치, 국제회의 기준 완화 등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국제회의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이 활발해져 고용창출 및 국가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신한뉴스, 로컬경기 등 28개 언론사 보도 ;

2023년 09월 06일 (수)

지역

亞洲經濟

원제용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의원(원주6)은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기존 도서구입비 및 설비비에 국한됐던 지원사업을 작은도서관 종사자 간 정보교류, 전문인력 육성, 지역주민 참여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해 공공시설 유휴 공간을 활용해 만들어진 도서관으로 생활밀착형 도서관문화 형성과 지역별 정보격차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에 비해 규모가 작고 도서관 자료도 다소 적은 편이지만 작은도서관은 마을 공동체의 거점, 동네 주민들이 참여하는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에는 현재 252개의 작은도서관이 운영중이지만 예산지원 항목은 작은도서관의 자료구입비와 설비비에 국한되어 있어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기에 제한적인 상황이었다.

개정조례안은 정보교류, 전문인력 육성, 참여증진 등 예산 지원사업 항목의 신설과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위임근거 명시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원제용 의원은 “생활밀착형 커뮤니티 공간으로써의 작은도서관이 좀 더 활성화되어야 주민들의 유대감 형성, 지식정보 교류, 상호 신뢰 등의 사회적자본이 구축된다”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 도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아주경제=춘천=강대웅·정성주 기자 ajucsj@ajunews.com

명성일보, 프레스뉴스 등 27개 언론사 보도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07일 (목)

종합 02면

강원 학생교육 조례 ‘노동 인권·평화’ 문구 사라진다

도의회, 제명 변경 개정안 가결
부정적 어감·정치적 해석 우려
안보강화 의도 교육내용 수정도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도내 학생 교육 조례와 관련해 ‘노동 인권’, ‘평화’ 문구를 삭제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길선)는 6일 제322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활성화지원조례’를 ‘도교육청 근로 권리보호활성화지원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가결했다.

조례는 도내 중·고등학교 학생에 연

간 2시간 이상 권리보호교육을 의무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영옥(홍천·국민의힘) 의원은 “‘노동 인권’이라는 말이 부정적인 면에서 와닿는다”며 조례 제명 변경에 공감했고, 김기하(동해·) 의원 역시 “노동인권 교육이라는 이름을 바꾸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조례를 발의한 엄기호(철원·) 의원은 “노동인권교육이라는 말 속에 근로자와 사주와의 대립적 관계에서 투쟁을 해서 얻어내는 어감이 있다”며 조례 제명 변경의 사유를 밝혔다.

‘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활성화조례’ 역시 ‘도교육청 통일교육활성화조례’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

정안은 조례 내 ‘평화’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등 문구 수정이 주를 이룬다.

김용래(강릉·) 의원은 “교육이 정치화되는 건 본의원도 반대한다”며 “‘평화’가 사실 나쁜 단어는 아닌데, 일선 선생님들과 언론에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권이든, 교육감의 그걸(이념) 그대로 하는데, 문구만 바뀌서 될 일이 아니다”며 “교육내용이 바뀌는 부분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은숙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교육내용을) 당연히 변경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평화’를 뺀 건 분단국가에 대한 안보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측면이 포함된 것이지, 정치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날 교육위는 가정·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이 입소하는 가정형 Wee센터의 춘천, 원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했다.

조례가 오는 1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각 기관에 4억2000만원이 투입된다.

이설화 lofi@kado.net



◇6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열린 제322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위원장: 박길선)에서 이승진(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강원자치도교육청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해 질의하고 있다. 신세기기자 and8729@kwnews.co.kr

‘평화통일교육→통일교육’ ‘노동인권→근로권리보호’

정권 따라 달라지는 조례 이름?

도의회 교육위 2차 회의
일부개정 조례안 통과 논란
“정치적 해석 여지 없앤 것”

자치도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평화·통일 교육’에서 ‘평화’라는 단어를 없앴다. 여기에 ‘노동인권교육’은 ‘근로권리보호교육’으로 바꾼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6일 제322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평화통일’을

‘통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명과 조문 중 ‘평화’를 없애고, 기본 방향 중 ‘평화·공존의 관점을 기반으로 미래 세대의 통일 역량 증진’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표 발의한 엄기호(국힘·철원) 의원은 “상위법령 체계의 용어를 사용하려는 것”이라며 “통일교육지원법상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

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고 돼 굳이 평화를 넣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를 없앤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래(국힘·강릉) 의원은 “교육이 정치화되면 안 된다. 평화가 나쁜 것이 아닌데 정치적으로 해석될 우려도 있다. 국힘 역시 평화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엄기호 의원이 발의한 ‘도교육청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교육위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A 도의원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조례가 바뀌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5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현정기자

江原日報

2023년 09월 06일 (수)

종합

‘평화.통일교육’ 대신 통일교육, ‘노동인권교육’ 대신 ‘근로권리보호교육’

6일 열린 도의회 제32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2차 회의
 '도교육청 평화통일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통과
 정권 입맛에 따라 조례가 개정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6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열린 제322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위원장:박길선)에서 엄기호(국민의힘.철원) 의원이 강원자치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고 있다. 신세희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평화.통일 교육’에서 ‘평화’라는 단어를 없앴다. 여기에 ‘노동인권교육’은 ‘근로권리보호교육’으로 바뀌면서 정권에 따라 조례 명칭과 내용이 변경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6일 제322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평화통일’을 ‘통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명과 조문 중 ‘평화’를 없애고, 기본 방향 중 ‘평화.공존의 관점을 기반으로 미래 세대의 통일 역량 증진’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표 발의한 엄기호(국힘.철원) 도의원은 “상위법령 체계의 용어를 사용하려는 것”이라며 “통일교육지원법상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고 돼 굳이 평화를 넣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를 없앤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의원들 스스로도 정치적 해석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김용래(국힘.강릉) 의원은 “교육이 정치화되면 안된다. 평화가 나쁜 것이 아닌데 정치적으로 해석될 우려도 있다. 국힘 역시 평화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은숙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평화를 뺀 건 안보교육이 강화될 필요성에 대해 생각한 것”이라면서도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날 엄기호 의원이 발의한 ‘도교육청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교육위를 통과했다. 엄 의원은 “노동인권교육이라는 말 속에는 근로자와 사주의 대립적 관계에서 투쟁을 통해 무언가를 얻어내는 어감이 있는데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 근로자의 권리를 누리길 바라며 바꾼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A 도의원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조례가 바뀌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5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시사일보

2023년 09월 06일 (수)

전국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교육현장 인성교육 강화
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교육위원회 통과

전영선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시사일보=전영선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교육위원회는 9월 6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교육위원회 조성운 의원(삼척 1)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인성교육시행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운영 경험을 통해 필요성이 제기된 인성교육과 관련된 교사 연구회의 운영을 지원하도록 새롭게 규정하고, 기존 조례에 불비(不備)되어 있는 인성교육 성과 평가와 그 결과를 차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조성운 의원은 교육현장의 정서적 환경이 날로 황폐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하고 교육현장의 각 주체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규범 마련 뿐만 아니라, 인성교육을 통한 교육현장의 정서적 안정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조례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9월 15일에 열리는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심의·의결 거쳐 공포하게 된다.

영성일보, 엔사이드 등 30개 언론사 보도 등

강원도의회, 작은도서관 지원·학생 근로권리 교육 조례 등 가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6일 국민의힘 **원제용**(원주6)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작은 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도서 구매비와 설비비에 국한된 지원사업을 작은 도서관 종사자 간 정보교류, 전문인력 육성, 지역주민 참여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문위는 국민의힘 심오섭(강릉2) 의원이 발의한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안과 같은 당 원미희(비례) 의원이 발의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김정수(철원1) 의원이 발의한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교육위원회는 국민의힘 엄기호(철원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가결했다.

전부개정안은 조례명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근로 권리보호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로 바꾸고,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생·청소년 대상 근로 권리보호 교육의 효과와 실효성을 증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위는 조성운(삼척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conanys@yna.co.kr

江原日報

2023년 09월 07일 (목)

종합 03면

자치도의회 상임위 현지 시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경제산업위원회 등이 6일 현지시찰을 진행, 활발한 현장 활동을 펼쳤다.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이날 고성을 찾아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준비상황을 살폈다. 특히 화장실, 음용수, 주차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힘을 쏟고 엑스포 개최 이후 사후관리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지난 7월 강릉에 도청 제2청사인 글로벌본부가 출범하면서 관련 업무 점검도 이어졌다. 농림수산위원회는 이날 글로벌본부 해양수산정책관을 방문, 업무보고를 받았다.

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도 이날 제2청사를 방문해 청사 주요시설을 둘러보고 미래산업국 업무 추진 상황을 청취했다. 이현정기자

[여기는 강릉] 강원도 제2청사 첫 업무보고... 오염수 대응 촉구



[앵커]

이어서 강릉입니다.

강원도의회가 지난 7월 개청한 강원도 제2청사에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특히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일본이 방류하기 시작한 방사능 오염수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가 옛 환동해본부가 개편된 강원도 해양수산정책관을 찾았습니다.

제2 청사가 개청한 뒤 처음 업무보고를 받은 위원들의 관심사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에 집중됐습니다.

이미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상황에서 검사 장비 2기를 추가 도입하는 건 강원도의 뒤늦은 대처라고 지적했습니다.

[엄윤순/강원도의원/농림수산위 : "이건 좀 늦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발 빠르게 빨리 좀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산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도 주문했습니다.

[박호균/강원도의원/농림수산위 : "재난문자 문자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민들이나 국민들에게 (방사능 검사 결과를) 안내를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강원도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대 공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우홍/강원도 해양수산정책관 : "(보건환경연구원이) 저희한테 다시 (검사 결과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도 홈페이지하고 도내 96개 전광판하고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미래산업국이 근무하는 제2 청사 글로벌관을 둘러봤습니다.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에너지산업 활성화와 폐광지역 진흥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김기철/강원도의회 경제산업위원장 : "수소 신산업 발굴 육성, ICT 소프트웨어 육성 산업 및 폐광지역 대체산업 지원 등 지역의 첨단산업 육성의 견인차 소임을 (기대합니다.)"]

강원도의회는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등 의사 일정을 제2 청사에서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촬영기자:구민혁

제27회 강원여성평등대회 속초서 개최

제27회 강원 여성 평등대회가 도내 여성기관 단체장과 여성 등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6일), 속초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양성 평등 발전에 노력한 유공자들을 포상하고, 양성평등 헌장 낭독과 경연 등의 행사를 통해 여성 회원간 화합과 우의를 다졌습니다.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열린 올해 강원 여성 평등대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완성은 우리가 함께 한다'를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강릉예술축전 오늘 개막...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제53회 강릉예술축전이 오는 30일까지 강릉아트센터와 작은공연장 '단', 송정해수욕장 등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전 기간에는 강릉연극협회가 오늘(6일) 저녁부터 작은공연장 '단'에서 상연하는 연극 '만선'을 시작으로, 창작무용과 사진전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강릉예술축전은 강릉예총과 산하 예술단체 등 강릉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직접 참여해 만드는 축제로, 1962년부터 해마다 하반기에 열리고 있습니다.

동해시,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 확대 추진

동해시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일부 지원을 확대하는 '동해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4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동해시는 강원도와 함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를 사업자에 일부 지원하고, 수요자가 부담하는 도시가스 공급관 연장 설치비용은 최대 25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하게 됩니다.

정선군, 농업 현장 체험 학습장 본격 운영

정선군은 최근 북평면 농업기술센터에 야생화 등 자생식물과 조경식물을 심어, 이론 교육과 실습을 병행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교육 공간인 현장 체험 학습장 2동을 조성했습니다.

정선군은 이를 통해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 군민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음 주부터 오는 11월까지의 치매 환자 등을 상대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강릉이었습니다.

정면구

시사일보

2023년 09월 06일 (수)

전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 동해안 시대 이끌 제2청사 현장 방문

영동과 영서 등 지역이 골고루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한 실효성 있고, 세밀한 정책 추진 강력히 주문

전영선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전경

[시사일보=전영선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9월 6일 강릉시 주문진읍에 위치한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글로벌본부)를 방문하여 청사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미래산업국 업무 추진 상황을 청취했다.

이번 현지시찰은 지난 6월 24일 개청한 제2청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비전과 목표를 포함한 체계적인 운영 기반 마련과 탄소·수소 등 전략산업 육성, 디지털산업과 폐광·탄광 지역 발전에 관한 업무 등 글로벌본부에서 추진하는 주요 핵심사업 현황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금번 방문에서 경제산업위원들은 그동안 소외됐던 영동지역과 남부지역 주민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행정을 접할 수 있게 된 만큼 지역 핵심 산업에 대한 정책의 실행력과 효과성을 높여 지역 발전을 가속화 해주길 강력히 주문했다.

김기철 강원도의회 경제산업위원장은 “제2청사 개청은 동일한 행정의 이분법적 분할도, 중복된 이중행정도 아닌,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라는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강원특별자치도민과의 약속이었으며, 지역 간 화합과 동반성장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청사진”이라고 말하며, “청정 강원의 미래 먹거리인 지역 첨단 산업 육성의 견인차 소임을 묵묵히 수행하는 제2청사 직원 여러분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꾸준히 관심을 갖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 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사일보, 뉴스썬 등 35개 언론사 보도 등

2023년 09월 06일 (수)

전국

시사일보

사회문화위원회 신규 소관 업무보고 및 현지시찰 추진

9월 7일 ~ 9월 8일 강릉 글로벌본부(관광국) 및 동해 주요 관광·문화 사업장 점검

전영선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전경

[시사일보=전영선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9월 7일부터 9월 8일까지(1박 2일) 현지시찰을 추진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인 글로벌본부개청에 따라 본부를 방문하여 현안 업무에 노고가 많은 직원들을 격려하고, 신규 이관 업무 및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른 내·외국인 관광객 확대를 위한 관광 주요 현안사업 업무보고를 받고 이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도깨비골스카이밸리&해랑전망대"와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된 "무릉별유천지"와 같은 관광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삼화사를 방문하여 문화재 보존방안 및 전통 문화행사 사업(삼화사 국행수륙대제 설행)에 대한 업무협의를 한다.

그 밖에도 다양한 관광 니즈를 확인하기 위해 망상오토캠핑리조트 및 추암 해수욕장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여 개별관광객 수요 확대방안 및 해수욕장 운영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도 꼼꼼히 현장을 살피고 지역의 목소리를 들으며, 이제 130여일 남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대회' 성공 개최 및 붐업 조성을 위해 '북평5일장'에서 "강원 2024 대회" 홍보를 위한 거리홍보 캠페인을 진행한다.

정재웅 사회문화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문화·관광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분야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도 적극 노력할 것이며, 문화·관광 정책 집중 점검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문화매일, 프레스뉴스 등 26개 언론사 보도 등

신아일보

2023년 09월 06일 (수)
지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준비상황 점검

조덕경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국제행사 성공개최를 위한 안전, 위생시설 등 확인



제322회 임시회 회기 중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국제행사의 성공개최를 위하여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준비상황을 현지시찰하였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들은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가 오는 22(일)에 개최됨에 따라 6일 제322회 임시회 회기 중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국제행사의 성공개최를 위하여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준비상황을 현지시찰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준비 상황을 현지 점검하며 화장실, 음용수, 주차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힘쓸 것과 엑스포 개최 이후 사후관리 대책 마련을 강조하였고, 남은 기간 18개 시군 및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로 성공적인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

[신아일보] 조덕경 기자

신아일보, 문화매일 등 27개 언론사 보도 등

jogi4448@naver.com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07일 (목)

인물 22면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고성 산림엑스포 현장방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가 6일 고성산림엑스포현장을 찾아 현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06일 (수)

정치

도의회 농림수산위, 2청사 해양수산정책관 현지 업무보고

이설화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가 6일 강릉시 주문진읍에 위치한 도 제2청사(글로벌본부)를 방문해 해양수산정책관 현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lofi@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07일 (목)

인물 22면



도의회 안전건설위 조례안 심의 6일 도의회 상임위에서 열린 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박기영) 특자도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에서 의원들이 정회를 선언한 후 의견을 나누고 있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07일 (목)

인물 23면



박정하 의원·강원특별자치도·강원연구원 등이 공동주최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자치도 공동세미나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관으로 열렸다.

“지방의회 자치조직권 확대 필요…특자도 상생협력 기대”

강원·전북·제주특별자치도 세미나

지방정부의 자치역량과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한 성공적인 특별자치도 모델 창출은 자치분권 시대 개막과 함께 국가구조를 개조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강원·전북·제주 특별자치도 공동세미나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정하·유상범·한병도·송재호 국회의원,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을 비롯 3개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은 이날 세미나 기조강연에서 “대한민국은 급격한 산업화와 민주화 속에 지방이 소외돼 왔다”며 “이제 지역발전을 토대로 국가발

전을 꾀하는 자유적 분권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양철 강원연구원 구위원은 이어 주제발표에 나서 “강원특별자치도는 규제완화에 이어 지방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추가 특례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길수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토론을 통해 “특별자치도의 기능 중 지방의회의 자치조직권 확대도 시급하다”며 “자치입법기구로서 생산성있는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담은 강원특별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강원·전북·제주가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창현

江原日報

2023년 09월 06일 (수)
종합[동정] 엄윤순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장

엄윤순(인제)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은 7일 오후 2시 인제군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리는 제1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 근대5종경기대회 개회식에 참석.

江原日報

2023년 09월 07일 (목)
인물동정 21면

◇엄윤순강원도의회농림수



산위원회부위원장(인제)은 7일 오후 2시 인제군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리는 제1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 근대5종 경기대회 개회식에 참석.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07일 (목)
인물동정 14면

대한체육회장배 전국 근대5종대회에 참석한다.

최상기(왼쪽) 인제군 수·엄윤순(인제) 도의회 농림수산위 부위원장은 7일 오후 1시 30분 인제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리는 제1회

2023년 09월 07일 (목)

江原日報

지역 11면

김진태 지사 “강원오페라하우스 건립 긍정 검토”

원강수 시장 제안에 답변

【원주】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 지사가 원강수 원주시장이 제안한 옛 종축장 부지에 강원오페라하우스 건립 요청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원주시에 따르면 원 시장은 6일 김 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강원오페라하우스 건립을 정식으로 제안했다. 지난 6월 옛 종축장 부지에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제안하는 언론 브리핑 이후 두 달여 만의 정식 제안이다.

원 시장은 “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강원자치도 이·통장연합회, 강원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노조협의회 등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지지 성명 발표가 잇따르는 등 시민의 열망이 매우 크다”며 “강원자치도 출범 이후 중부내륙권의 문화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자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지사는 “우리 도민의 문화 향유에 대한 큰 염원을 확인했다. 원주시 제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화답했다.

시는 원 시장이 강원자치도 정주여건 개선과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강원오페라하우스 건립에 대한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했다, 김 지사가 공감을 표하는 자리가 마련된 만큼 성공적인 사업 준비에 착실히 임한다는 각오다. 허남윤기자

2023년 09월 07일 (목)

종합 02면

江原日報

강원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오늘 출범

강원특별자치도가 전국 시·도 중 가장 먼저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에 나선다.

강원자치도는 7일 도청 본관 2층 회의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및 제1회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는 ‘시도 지방시대위원회’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법정 심의기구다.

위원회는 앞으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수행하는 현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혁신 정책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연계·협력을 견인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분

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위원회는 정부 지방시대위원회의 추천과 도의회, 도내 대학, 혁신기관 및 각계각층의 추천 및 신청 등을 받아 20명으로 구성한다. 임기는 이날부터 2025년 9월6일까지 2년간이다.

김진태 지사가 이날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신임 위원장 주재로 위원회 운영계획, 도 지방시대 계획(안) 및 도 초광역권 발전계획(안) 보고 및 심의 안건 순으로 첫 정기회의를 진행한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2023년 09월 07일 (목)

종합 01면

江原日報

혈세만 낭비한 '공공앱·전기차 지원 사업'

전임 도정 추진 정책 도마 위

‘일단시켜’ 등 전임 강원도정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한 지원 사업들이 5년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27억원을 들여 개발한 ‘일단시켜’는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종료하고 320억원이 투입된 전기차 생산업체 ‘디피코’는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일단시켜’ 다음 달 서비스 종료=춘천에서 배달 뽕밥집을 운영하는 30대 김모씨는 지난달 ‘일단시켜’ 가맹점에서 탈퇴했다. 6개월 넘게 단 한 건의 배달 요청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도는 2020년 ‘일단시켜’ 출시 이후 앱 운영과 홍보를 위해 올 7월 까지 총 27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배달앱 ‘일단시켜’ 이용자 외면 속 10월 중 서비스 종료
‘우리도’ 앱 가입률 저조·잡은 서비스 오류에 불만 높아
320억 투입 ‘형성 전기차업체’ 경영 악화 기업회생 절차

할인 쿠폰 15억원, 홍보에 9억원 등을 사용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누적 가입자 수는 8월 기준 총 12만3,000여명으로 도내 전체 인구(153만여명)의 8%에 불과하다. 이용 건수 또한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월평균 3만2,680건에 그쳤다. 더욱이 일단시켜 서버의 유지·보수를 담당했던 운영업체와의 계약도 해지됐다. 강원자치도는 다음 달 15일부로 앱 서비스를 종료한다.

■‘우리도’ 앱 이용자 외면=강원도가 51억원을 들여 개발한 애플리

케이션 ‘우리도’ 역시 도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다.

‘우리도’(나야나)는 도가 지난해 4월 출시한 블록체인 기술 기반 민원 통합서비스 플랫폼이다. 국비 9억5,000만원, 도비 25억4,000만원, 민간 투자 16억6,000만원 등 개발에만 51억5,000만원이 투입됐다. 출시 일주일 만에 가입자 5만여명을 모았지만 이후 1년3개월이 지난 7월 말까지 누적 가입자 수가 13만명에 그치며 저조한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잡은 버그로 이용자들의 평가 또한 부정

적이다. 안드로이드 앱스토어 확인 결과, 평균 별점은 2.3점에 그쳤다. 기본 기능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편 토로도 이어지고 있다.

■전기차 업체 ‘디피코’ 기업회생 절차 돌입=형성의 완성형 전기차 업체 ‘디피코’는 지난달 31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냈다. 임금 체불, 이자 연체 건이 누적되며 더 이상 경영을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2020년 5월 형성으로 본사를 이전한 디피코는 같은 해 11월부터 본격적인 전기차 생산에 들어갔다. 강원도의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에 더해 당시 정부가 ‘형성 전기차 클러스터’를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으로 선정하면서 도 대표 주력 산업으로 주목받았다. 특히 2030년까지 경형 화물 전기차 국내 수요 3분의 1을 점유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했다.

양오석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금을 지니고 있는 관 주도 사업의 특징은 사업 수립 과정에서 ‘구축’ 단계에만 집중한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판매,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 생산, 판매, 유통까지 총체적인 가치사슬 활동 중심의 전략을 꼼꼼히 수립한 뒤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규호·김현아·김준겸기자

2023년 09월 07일 (목)

사회 04면

江原日報

강원 교사 1만6,871명인데... 정신건강 상담사 단 1명뿐

교원치유지원센터 인력 부족

교권침해 등으로부터 교사의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사가 강원도에 단 1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최연숙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상담사 수는 총 26명으로 이 가운데 강원도는 1명이었다. 상담사 1명이 강원지역 전체 교사 1만6,871명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교원치유지원센터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권침해 등으로 입은 교사의 정신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기관이다. 교사들에게 상담,

심리치료, 법률 지원, 예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교원치유지원센터는 춘천에 있는 본청에 위치해 있어 먼 거리에 근무하는 일선 시·군 교사들이 오가며 마음 편히 상담을 진행하기가 어렵다.

최근 교육활동 침해 및 학부모 악성민원 등으로 교사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녹색병원이 지난 5일 발표한 ‘2023년 교사 직무 관련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전국 유·초·중·고 및 특수·상담·사서교사 3,505명 가운데 63.4%가 우울 증상을 겪었다고 답했다. 원선영기자 haru@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07일 (목)

종합 01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내달 착공

11개 사업 인허가 중 7개 완료
윤석열 정부 규제완화 핵심 탄력
남은 인허가 절차 동시진행 순항
10월 착공식 2025년 말 완공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10월 하순 첫삽을 뜬다.

6일 본지 취재 결과, 양양군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 착공식은 오는 10월 하순쯤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허가 절차는 단 4개만 남겨두고 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43년간 표류해오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가속도가 붙었다. 환경부는 오색케이블카 사업과 관련, 지난 2월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승인했으며 이후 인허가 절차가 속속 진행됐다. 11개 인허가 중 7건은 모두 완료됐다. 이와 관련, 김진태 지사는 “설악산 대청봉에 첫눈 내리기 전인 10월 내 반드시 오색케이블카사업의 첫삽을 뜨겠다”고 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규제완화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라는 점에서 사업에 탄력이 붙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남은 인허가 절차는 △특별건설 승인(국토교통부) △국유림 이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산림청) △공원사업시행허가(국립공원공단) 등이라고 밝혔다. 마지막 승인 절차인 공원사업시행허가를 제외하면 사실상 막바지 단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예산·일정

총 사업비 1172억원(도비 224억·군비 948억)

2023년	250억 3500만원
2024년	506억(도비 100억·군비 406억)
2025년	352억 3500만원 (도비 84억·268억 3500만원)
기 편성	63억 3000만원 (도비 40억·군비 23억 3000만원)

일정

9월말	특별건설 승인·국유림 이용 허가·산지일시 사용 허가 완료 목표
10월	공원사업 시행허가 공사발주 시작
10월 하순	착공식 ▶▶ 2025년 말 완공

에 있다는 게 양양군과 강원도의 설명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해당 인허가 절차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 이달 내 완료를 목표로 한다”고 했다.

양양군은 공사발주 전에, 착공식 시점을 검토하고 있다. 업체 선정과 무관하게 착공식을 갖겠다는 의미다. 조달청이 발주할 경우 최소 2개월이 소요된다. 양양군의 계획대로라면 10월 하순 착공식 이후, 공사 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남은 과제는 사업비 확보다. 케이블카 총사업비는 1172억원이다. 이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부터 100억원씩, 총 224억원을 지원한다. 나머지 948억원은 양양군이 마련하기로 했다. 양양군은 2015년부터 재정안정화 기금을 적립, 총 580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오색케이블카는 오는 2026년부터 상업 운행에 나설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양양군 케이블카 사업은 지역주민이 40여년간 갈망했던 숙원사업이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내달 개최될 예정인 착공식 이전에 모든 인허가 절차가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김덕형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07일 (목)

사설/칼럼 19면

추석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을

-건설공사장 체불 잇따라 철저한 감독으로 실효 거둬야

크고 작은 임금 체불 소식이 나오면서 우려가 큼니다. 전기차 제조공장을 형성으로 이전한 디피코는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임금체불과 이자연체 등 어려움을 겪다가 끝내 회생하지 못하고 파산 절차에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춘천, 속초, 평창 등지에서는 아파트와 전원주택, 숙박시설 등 건설공사장에서 임금체불이 빚어져 해당 시군과 원청 기업을 찾아가 항의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8월말 평창관내아파트 건설사업현장 노동자 10여명은 조속한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7월 하순엔 속초에서 생활형 숙박시설 내부공사를 해온 노동자 60여명이 2억4000여만원의 밀린 임금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앞서 춘천에서는 전원주택 건설 과정에서 자재와 식사를 공급한 지역업체가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항의가 있었습니다. 보도된 것은 일부에 불과하며 미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곳은 더 있습니다.

대부분 임금체불 사업장은 30인 미만으로 영세합니다. 임금이 밀리면 노동자들은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기 마련입니다. 당장 생계 곤란을 비롯 카드 사용액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자 전락에 가정 파탄 등 치명적인 위기를 초래합니다. 노동단체 여건이 열악한 곳일

수록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집단 대응이 어렵습니다. 우선 보호해야 할 대상이므로 강원 고용노동지청과 시군에서는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임금체불은 개인과 가족을 넘어 국가경제와 시장 전반에 큰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 법과 제도를 통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비롯해 여러 제도 조치 강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금체불액은 증가 추세입니다. 체불이 만연화되는 배경엔 폐업과 도산, 일시적인 경영악화 등과 같은 경제적인 위기 외에 또 다른 원인이 지목됩니다. 경영악화 상황이 닥치면 우선 임금부터 체불하는 경향이라든가 불합리한 근로계약문화, 노동 경시 풍조, 사업주 준법의식 부족, 불평등한 고용 관행이 임금체불을 더 쉽게 하는 것으로 지적됩니다. 일부 사업주는 노동자 간 분쟁을 빌미로 감정적 대립 차원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습적이며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장은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체불 예방이 공허한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감독기관은 현장 중심 수시 감독을 통해 개선해야 합니다. 오는 27일까지 집중 지도 기간이 운영되는 만큼 실질적인 성과를 내놓길 바랍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9월 07일 (목)

사설/칼럼 19면

‘천원의 아침밥’ 지속가능성이 관건

-예산 부족 사업 축소 위기, 일회성 정책 우려

대학생들이 1000원으로 아침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축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비용 대부분을 대학이 부담해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은 물가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재원 대책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추진돼, 자칫 일회성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지속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소홀히 한다면, 이벤트성 정책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또한 일단 사업을 추진했다면, 집행 기관과 예산 비용을 재조정하는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천원의 아침밥은 도내 대학 학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가톨릭관동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상지대, 연세대 미래, 한라대, 한림대 등 7개 대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학생 한 명당 1000원을 지원하고 학교가 나머지 부담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나 정부 지원에 비해 대학의 부담이 커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도내 대학은 많게는 한 끼에 4000원, 적게는 2000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도내 한 대학은 당초 대학 회계 예산

3800만원과 발전기금 2500만원을 마련해 사업을 시작했으나, 예산이 부족해 추경을 통해 3800만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또 다른 대학은 1학기에 누적 인원 1만 2300여 명이 천원의 아침밥을 먹었으며, 이 과정에서 대학이 2500여만원의 적자를 입기도 했습니다. 일부 대학은 매일 200명 한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1년 식수 인원인 2만 2400명을 전부 채우고 사업을 조기에 종료할 학교도 있습니다. 정책 시행 1년도 안 돼 곳곳에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

올 상반기 이 사업에는 정치권의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청년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한 끼 식사를 챙길 수 있는 데다, 줄어드는 쌀 소비량도 늘릴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참여 대학을 추가 모집했고, 전국적으로 모두 145개 대학이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이 서지 않으면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 5일 도의회가 ‘천원의 아침밥’ 사업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가결한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앞으로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법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江原日報

2023년 09월 07일 (목)

사설/칼럼 19면

소비자물가 다시 3%대, '서민 경제' 짓누르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비자물가가 3개월 만에 3%대로 다시 치솟았다. 추석을 앞두고 올여름 폭염·폭우 등 이상 기후 영향으로 과일 값 등 농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오름세를 타고 있는 점이 악재로 작용했다. 지금까지 물가 인상 폭을 줄이는 데에 기여한 국제유가가 재차 들쭉이고 있는 것도 물가 상승을 키웠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의 '2023년 8월 강원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도내 물가지수는 113.40(2020년=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3.1% 올랐다. 물가상승률은 올 5월 3.2%를 기록한 이후 6월 2.4%, 7월에는 1.8%로 2년4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지만 3개월 만에 다시 3%대로 재진입했다.

농산물의 경우 1년 전보다 4.7% 올랐다. 특히 과실 물가가 전년 대비 15.2% 뛰어 2021년 5월(15.9%)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채소류는 1년 전보다 2.7% 하락했지만 전월(-4.5%)과 비교하면 14.9% 올랐다. 산유국들의 감산 지속으로 배럴당 70달러 안팎이던 국제유가가 80달러대로 인상되자 휘발유·경유 가격이 다시 급등세다. 이상 기후가 지구촌 곳곳을 강타하면서 국제 식료품 가격도 치솟고 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서민들의 물가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다. 무더위를 이겨내느라 예년보다 에어컨을 더 틀었다가

평소 갑절 수준의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들이고 놀란 가정이 적지 않다. 물가 고삐를 다시 단단히 잡아야 할 때다. 물가 상승은 가뜩이나 움츠러든 소비를 더욱 위축시킬 공산이 크다. 벌써부터 추석 차례상을 최대한 간소하게 처리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10월 이후 물가가 하향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물가를 끌어올릴 요인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감산으로 요즘 국제유가는 연중 최고다. 정부가 2개월 연장한 유류세 인하 조치는 10월 말에 끝난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상 기후로 국제 곡물가, 설탕 가격은 여전히 불안하다. 한국전력, 가스공사의 막대한 누적 적자 때문에 추가로 전기, 가스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물가의 외부 변수를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다. 그렇기에 정부의 역할이 더욱 막중하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급등하는 물가가 서민들의 명절 보내기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추석 물가 대책을 시작으로 생활 물가 안정, 내수 진작까지 도모할 수 있는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반기 물가 관리에 실패하면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기 반등의 불씨가 꺼질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江原日報

2023년 09월 07일 (목)

사설/칼럼 19면

발등의 불 된 강원특별자치도 재정 건전성 확보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 재정 건전성 확보가 발등의 불이 돼 가고 있다. 내년 강원자치도의 지방교부세가 1,200억원 이상 삭감되고 지방세 역시 최대 2,000억원 이상 부족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내년에는 큰 폭의 교부세 감소가 확정적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방교부세를 역대 최대 규모인 8조5,000억원 감액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 비해 11.3% 줄어든다. 강원자치도 역시 내년 지방교부세가 1,200억~1,300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원자치도의 재정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방재정의 수입은 자체 자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되는 의존 자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그리고 보조금으로 구성된다. 강원자치도는 자체 수입 비중이 30%에도 미치지 못해 이전 자원 의존도가 매우 높다. 취약한 산업기반과 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세입 구조, 조세법률주의로 인한 과세권 부재는 지역의 세입기반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세입분권 진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지역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의 과세자주권 확보가 여의치 않아 지방세 확충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세입기반 확대의 중요한 세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세외수입이다. 세외수입은 통상 지방재정수입 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 수입을 의미

한다. 주로 자치단체가 설치·제공하는 공물의 사용이나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해 이용자나 수혜자에게 반대급부 또는 대가적 성격으로 징수하는 수입이다.

세외수입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비교적 자유로운 영역이다, 강원자치도의 노력 여하에 따라 확대·개발이 용이해 중요한 수입원이 될 수 있다. 강원자치도는 세외수입 발굴에 나서야 한다. 물론 세외수입 확대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세외수입은 수입의 근거가 되는 개별법령이 200개가 넘고, 과목 수가 2,

900여개에 달하는 등 약한 체계성과 분산 운영의 난점으로 그간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아 왔던 것이 사실이다. 잠재 세원으로 머물러 있는 세외수입을 실

내년 교부세 1,200억원 삭감 등 세수 부족

자체 수입 비중 30% 못 미쳐 이전 재원에 의존

세외수입 등 세원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할 때

제 세원화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사용료 및 대부료의 적정성 검토를 통한 사용요율 현실화, 부과 징수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는 업무시스템 개선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강원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재정 기반 확보가 중요하다. 강원자치도는 자치도 출범의 위상에 걸맞은 세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과세자주권 확보, 세외수입 등 새로운 세원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한다. 강원자치도가 제대로 뿌리내리고 지역의 자기결정권을 실현해주는 기본 요건은 재정 건전성 확보다. 중장기적인 세제와 재정 건전성 유지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더 늦춰선 안 될 중대한 과제다.